

제74회 국가 기도의 날, “하나님 중심의 영성 회복하자”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제74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1일, 총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 모인 한인들은 회개와 미국 지도자들의 성경적 리더십 회복과 세계 선교와 조국과 차세대를 위해 합심해 기도의 두 손을 모았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개인과 미국이 범하는 죄를 회개하고 대통령과 미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 주의 회와 각 시의회를 위해 기도했다.

또 미국의 성경적 교육 회복, 부모의 각성과 가정의 회복,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 조국과 차세대,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국윤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가 ‘이제라도 중심을 잡자’(삼상 7:3-1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성근 목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인 기도에는 힘이 있다. 가정과 국가



제74회 국가기도의날 기도회(National Day of Prayer)가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5월1일(목) 오후 7시 총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뒤집는 힘은 기도이다”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어 기울어진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다. 경제적으로는 온 세계가

침체와 혼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민자들을 축출하고 인종차별과 마약, 도박이 난무하다. 또 동성애가 점령군처럼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들이다. 영적으로는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종교적 차원의

로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통합 사상 뒤에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울어진 현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결국 패망하게 된다”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2부 기도회는 민종기 목사(총현선교교회 원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김태형 목사(ANC은누리교회),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한현중 목사(크랜셔장로교회), 허창도 목사(기쁜우리교회 부목사), 안현숙 목사(CBS 중보기도팀 대표), 신용환 목사(주님세운교회),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이사장), 진건호 목사(하톤교회),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 부목사), 양영모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부목사), 김상현 목사(남가주주안예교회), 김철민 장로(CMF 선교원), 한철수 장로(남가주장로성가단 단장)이 기도를 인도했다.

토마스 맥 기자

KPCA, 부총회장에 증경총회장 김종훈 목사 선출

사전 등록자 없어 총회서 추천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일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총회를 갖고 신임 목사부총회장으로 증경총회장인 김종훈 목사를 이례적으로 선출했다.

KPCA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해 목사부총회장을 다음 회기 총회장으로 추대한다. 따라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회장 선거와 다름 없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후보 접수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9회 총회가 7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김진영 기자

이에 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받았고, 증경총회장단이 이미 총회장을 역임한 김종훈 목사를 단수 추천한

것이다. 증경총회장단 측은 김 목사를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내년 회년을 맞아 KPCA가 세계를 향한 선

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 경험이 있는 증경총회장님 중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단수 추천한 것은 김 목사가 증경총회장으로서 교단의 주요 지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단 법에 따라 후보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총대들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총회의 회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을 뽑는 것인데 너무 시급하게 추천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영 기자 → 4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여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참깊기년

부흥
성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요한복음 11:40)

유재명 목사

2025. 5.15(목) ~ 18(주일)
15(목) 7:30pm/ 16(금) 5:15am, 7:30pm/ 17(토) 6:00am, 7:30pm
18(주일) 1부 7:20am, 대예배 11:00am

강사 :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43rd YEARS ANNIVERSARY

주일 | 1부7:20am, 2부9:10am, 3부11:20am, 4부2:00pm | 금요성령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사 고

본문이 살아나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10일로 변경

5월 26일~17일로 예정되었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가 6월 9일~10일(월, 화)로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큰나무교회 담임이며,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인 김귀보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성경 본문이 살아 움직이는 설교, 듣는 이의 마음을 여는 설교, 말씀이 '들리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길 바라는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미나 등록은 QR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일시: 6월 9일(월)~ 10일(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 장로교회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문의: 213-739-0403

여러분 가정의 특별한 예배 이야기 들려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예배 문화 확산 위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을까? 그 특별한 이야기를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주관으로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이 5월 1일(목)부터 6월 6일(금)까지 남가주 지역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물론, 조부모가 함께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자녀를 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참여할 수 있다.

가정예배 소개서,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개서는 ▲정기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예배 방



식(장소, 아이템, 가족 역할, 예배 후 나눔 등) ▲가계에 남는 에피소드 ▲예배를 통해 경험한 변화와 느낀 점 (가족 구성원의 소감) ▲가정예배를 통한 비전과 기도

제목 ▲영상에 대한 설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담아, Letter 사이즈 3~6매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

영상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가정예배를 통해 느낀 감사의 마음을 나누거나, 가족 구성원 일부가 각자의 소감을 간단히 담은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가정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이나, 예배를 위해 사용된 소품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가정에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가정예배를 통해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면,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공모작 접수는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또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당선작은 6월 13일(금), 미주복음방송과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해 공지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5,000 상금이 수여되며, 6월 26일(목)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1가정): \$1,000 ▲최우수상(2가정): 각 \$500 ▲우수상(3가정): 각 \$400 ▲장려상(6가정): 각 \$300

공모전 안내

1.기간: 5월 1일(목)~ 6월 6일(금)

2.접수방법: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 또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kr.wmu.edu)

3.문의: (714) 484-1190

이윤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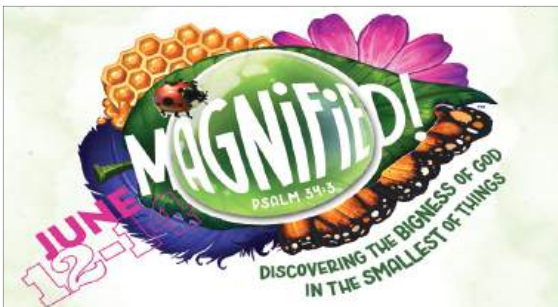
올해 VBS 주제는, Magnified, True North, Wonder Junction

여름 방학이 가까워 오면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 성경 캠프 준비 모드로 들어간다.

VBS의 기원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리교 감독 교회는 뉴욕주 레이크 셔트워(Chautauqua) 근처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 주일학교를 열었다. 곧이어 전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자체적인 여름 성경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제공했다.

1894년 감리교 목사의 아내이자 공립학교 교사인 DT 마일즈는 학교 교육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여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일 성경 학교를 시작했다. 1898년 뉴욕 에피파니 침례교회 어린이부 부장인 버지니아 싱클레어 호스는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매일 성경 학교"를 시작했다.

1922년에 이르러서는 5,000개의 여름 성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5주 동안 진행되었고, 1950년대에는 약 6만 개의 성경학교가 운영되고, 약 50만 명의 학생과 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았다.



여름 방학이 가까워 오면서 남가주 교회들은 VBS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은 1922년 정동교회에서 처음 실시되어 5명의 교사가 200여 명의 아동을 가르쳤으며, 8·15광복 이후 각 교단 또는 개체교회 중심으로 정기 교회 행사로 자리잡았다.

남가주 한인교회의 VBS의 역사는 남가주 한인 이민사와 뗄래야 뗄 수 없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남가주 한인교회의 VBS(여름 성경학교)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남가주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교회가 한인 커

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한인 교회는 여름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축제의 역할도 했다.

2000대에 들어서 세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영어권 자녀들이 VBS의 주축이 되었고, EM (English Ministry)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며, 규모가 작은 한인교회들은 인력, 재정 부족으로 자체 VBS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시대는 변했고, VBS도 여러 번

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VBS는 중요한 교회 연례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인교회들의 VBS 테마는 "Magnified!, Discovering the Bigness of God in the Smallest of Things", "Keepers of the Kingdom", "True North", "Live It Out", "At Camp Promised Land" 등으로 좁혀진다.

일정은 많은 교회들이 6월에 진행하며, 기간은 3일~5일 정도며, 평일에는 저녁 시간에, 주말에는 오전~이른 오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VBS 일정 및 주제

▶ 감사한인교회 6/24-27(화-금)
At Camp Promised Land, Pre-school ~5학년, 오후 5시~10시

▶ 남가주동신교회 Magnified!
유치부~초등부 6/18-6/21(수-토) 영아부 및 유아부 6/21(토) 10-2시
▶남가주 새누리교회 Magnified!
6/12-14(목-토) 목-금 오후 6-9시, 토 10-1시

▶동부사랑의교회 Magnified!
6/3-6/5(화-목) 오후 5:30-8시 30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베델교회 Wonder Junction
유치부~5학년 6/10-6/14(화-토) 영아/유아/유치 6/17~6/20(화-금)

▶ 열바인 온누리 Live It Out
6/11-14(수-토) 48개월-6학년

▶ 은혜한인교회 True North
6/17-21(화-토) 4세-5학년

▶ 충현선교회 Magnified!
6/19-22(목-주일)

▶ 한길교회 True North
6/20-22(금-주일), 영유아-5학년

▶ ANC온누리교회, Magnified!
6/18-6/20(수-금), 유아-6학년
▶ LA사랑의교회 Master Chef
유아부-2학년 6/11-6/13(수-금)
3학년-8학년 6/30-7/3(월-목)
말리부 페퍼다인 대학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he Holy One”, 예수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길

러빙워십 주관, 허준호 집사
새롭게 하소서 팀 출연

지난 2일~4일(금~주일) 새롭게 하소서 팀과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남가주 교회들의 연합과 다음 세대를 위해 뭉쳤다.

러빙워십이 주관하고 <새롭게 하소서> 팀과 배우 허준호 집사가 함께한 ‘더 홀리 원’(The Holy One) 콘서트가 남가주 교회 세 곳에서 진행됐다.

첫째 날 감사한인교회, 둘째 날 나성영락교회, 마지막 날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곡 <겟세마네>를 깊은 표현력과 가창력으로 소화해낸 허준호 집사를 비롯해, 현대적 편곡과 열정적 기타 연주로 무대를 풍성하게 이끈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재치 있는 입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내는 MC 주영훈 등이 무대에 올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충현선교교회 본당이 가득 찬 가운데, 조범진의 ‘목마른 사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시작으로, 새롭게 하소서의 MC 주영훈이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을 겪으며 그의 간증을 담아 쓴 곡 ‘거기 있었다’를 조범진과 함께 불렀다.

다음으로 찬양사역자 여니엘이, <



러빙워십이 주관하고 <새롭게 하소서> 팀과 배우 허준호 집사가 함께 한 ‘더 홀리 원’(The Holy One) 콘서트가 남가주 교회 세 곳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주님의 하실 수 있네), <예수, 예수>를 불렀고, 로마서 10장 13-15절을 나레이션으로 전하며, 교회를 가로질러 무대에 등장한 허준호 집사는 그는 윤복희 권사에게서 받은 곡이라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겟세마네>를 긴 호흡과 폭발력 넘치는 목소리로 부르며, 무대를 장악했다.

“저는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봤다. 저는 불신자였고 사고가 났던 순간 부적이 몸 곳곳에, 제 차에도 있었다. 하나님을 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 주변에 크리스천은 윤복희 권사님 밖에 없어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에게 이 곡을 주셨다.”

허준호 집사의 무대에 이어,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가 이번 콘서트에 담긴 의미를 나누며, “누가 홀리원,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빙워십과 새롭게 하소서 팀이 <살아계신 주>, <실로암> 등을 열창한 후, 국윤권 목사의 메시지와 축도로 모든 콘서트의 순서가 마무리됐다.

국윤권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을 겪고, 그 가운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았으며, 교회를 연합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젊을 때 교회들이 깨지는 것을 많이 봤다. 그 가운데,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하나님께서 그저 저희 가정, 교회 하나 잘 해보려 부르신 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다.”

이번 콘서트는 러빙워십이 주관했으며, 최경태 감독(Troy Choi, 라라랜드 월드투어 쇼)이 연출과 음악을 담당했다. 밴드에는 백정열(드럼), 김기성(베이스), 강범술(기타), 김호인(건반), 음향감독 김성렬, 강창위, 영상감독 이용주, 실황중계 김도일이 함께 했다. 주디 한 기자



왼쪽부터 찬양 사역자 여니엘,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주영훈. ©기독일보

5월 창립 부흥성회 및 찬양 집회

5월 다양한 집회 및 가정을 위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창립 43주년을 맞은 은혜한인교회는 5월 15일~18일(목~주일)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를 초청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연다.

5월 18일(주일) 3부 예배에서 창립 4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드린다.

나성영락교회는 18일(주일) 3부예배 때 우미셀 목사가 청년부예배를 인도한다.

동양선교교회 11일 아버지주일 오후 1시 15분에 본당에서 김규연 전문의(전 세브란스 병원 국제 진료소 교수 역임)를 강사로 치매 예방에 관한 특강을 열



얼바인 온누리교회 김윤진 전도사 찬양집회. ©기독일보

며, 23일(금) 오후 4시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족을 기억하며 드리는,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린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16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김윤진 전도사 찬양집회를 연다.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18일(주일) 오후 6시 30분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제2회 연합 선교음악회를 갖는다. 수익금은 아이티 뿌티트루 드니프의 소망학교 건축기금으로 전달된다.

김민선 기자

장애, 비장애 하나 되는 ‘사랑의 마당 축제’

5월 17일(토) 10시~2시
부에나파크 미들 스쿨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 축제’가 오는 5월 17일(토) ‘부에나파크 미들스쿨’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1회를 맞은 사랑의 마당 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에서 장애사역을 담당하는 교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이다.

장애사역 교회와 단체들의 사역 홍보, 협력, 교류를 위해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공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가 제공된다.

올해는 ANC온누리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풀무원, 남가주밀알선교단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17일(토) 부에나팍미들 스쿨에서 개최된다.

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방송과 카라반 캐노피, 한미은행, OC한인라이온스클럽, 로열비지니스뱅크에서 특별후원한다. 남가주 20개의 교회 장애부서

와 15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주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562-229-0001, 213-368-2630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월)~10(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숙제 안고 막내린 미주 총회, “발전특위 구성”

이민자 급감 등 3년간 연구
새 총회장 김종호 목사 선출
목사 부총회장 안충기 목사
정인충 장로도 부총회장에
총무는 김시온 목사가 재선

미주성결교회는 지난 4월 22일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교단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하와이 총회는 대의원 119명을 포함해 총 279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 김종호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형식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총회장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지방회가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총 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면서 “하나됨을 통해 진정한 전진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안충기 목사가 투표 없이 당선선이 공포되었고, 서기에는 김종민 목사(애틀랜타교회), 부서기에



미주 성결교회는 4월 22일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성결신문

이석 목사(새소망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장로 부총회장과 회계, 부회계는 임후보자가 없어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장로부총회장에 정인충 장로(시카고 다솜교회)가 선임되었다. 또 회계에는 정주현 장로(면류관교회)가 재 선임되었으며, 허요한 장로(하와이 갈보리교회)가 신임 부회계로 당선됐다.

관심을 모은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 김시온 목사(웅기장이교회)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 목사는 총 119명 중 69표를 얻어 50표를 얻은 김종률 목사(사우스베이션교회)를 누르고 총무로 재선임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민 교회 고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목회자와 장로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년연장연구위원회(위원장 황하균 목사)는 경상배 5만불 이하의

교회에 한하여 후임을 청빙하지 못할 경우, 3년씩 2회까지 사역 연장을 허락하는 연구안을 상정했다.

또 고령화 에 따른 해결책으로 목회자와 직원(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하는 헌법개정안도 청원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연구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헌법 연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번에 통과된 두 유형의 정년 연장안은 현연위 에서 1년간 연구 후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

미주총회는 이와 함께 이민자 급감, 교세 약화 및 목회자 수급 부족 등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년 임기의 ‘교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중부 지방회와 중 남부지방회 통합의 건은 양 지방회의 통합 사유를 충분히 듣되 선교부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1년 더 연구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면 총회 격년 개최는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으며, 총회 폐회예배시 총회장 이취임 예배를 거행하기로 했다.

이번 하와이 총회는 사실상 하루 동안만 회무가 진행되었지만 개회부터 토론토 벨엘교회와 일부 목회자의 대의원 자격문제로 상당 시간 격론이 오갔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론토 벨엘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과 지방회 탈퇴 및 가입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사자인 벨엘교회와 중앙지방회가 사과하고 대의원권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미주성결신문 기사 제공**

→ 1면 기사 <해외한인장로회.. 김종훈 목사 선출>에 이어서

한동안 감론을박이 이어졌고 “속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에 따라 정회했다. 속회 후 증경총회장단은 결국 김 목사와 함께, 역시 증경총회장인 원종권 목사도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원 목사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 목사를 단독 후보로 두고 총대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153표, 반대 43표, 기권 11표로 김 목사가 당선됐다.

신임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제49회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김경수 목사(중앙노회)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김경수 목사는 앞서 소견 발표에서 “많은 이민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9회 총회 신임 부총회장에 당선된 김종훈 목사. ©기독교일보

교회들의 사역이 어렵다. 이민자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고 한인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런 형편”이라며 “이런 가운데 KPCA는 믿음을 지키며 세속주의의 가장 거센 물결인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 한해 동안 총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이 실질적 평안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것”이라며 “또한 교단의 재정 잘 활용해 안식년을 갖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인 배문성 장로(서북남노회)가 투표 결과 찬성 218표로 선출됐다. 배 장로는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총회장님을 보필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여러 총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한인교회들로 구성된 KPCA는 지난 2010년 서울 명성교회에서 제35회 총회를 가진 이후 15년 만에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직전 총회장인 박태경 목사는 ‘희년을 준비합시다’(레 25:8~12)라는 제목으로 전한 개회예배 설교에서 “KPCA는 창립 50주년인 희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냐? 이는 동시에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등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업적을 언급한 박 목사는 “앞으로 KPCA 총회와 20개 노회와 지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계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을 믿는다”며 “여기까지 현

신하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위대한 KPCA를 만들어 갈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는 “총회는 2026년에 맞을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총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총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총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순창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는 내빈인사에서 “별빛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빛줄기가 모여 강물을 이루듯, 26개 국에 흩어져 있는 KPCA 성도들의 기도과 눈물, 선교와 헌신으로 영적 불빛이 밝혀질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조이스리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는지보다, 환자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마주하는 진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특히,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신 **어머님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14-519-3024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센터메디컬 클리닉
LA동부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송홍우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LA 동부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 지식과 진심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26-363-4661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역
내과 전문의

나 임유일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저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이루**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턱관절 문제로 오랜 시간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보톡스**와 **PRP 주사치료**를 통해 편안함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714-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센터메디컬 클리닉
OC 지역
정신과 전문의

나 고제득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1.5세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조울증 같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매, 수면장애, 공황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까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그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저는 지금 **센터메디컬그룹**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점 714-519-3024
가든그로브 지점 714-583-8569
로렌하이츠 지점 626-363-4661

© 센터메디컬그룹

기독교, 북미·유럽에선 ‘세속화·쇠퇴’ 라틴·아프리카에선 ‘성장’

세계 85개 국 9만1천 명 대상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가 세속화하거나 쇠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영국성서공회와 협력해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Gallup)을 통해 전 세계 85개 국 9만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World Bible Attitude Survey)’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고 대한성서공회가 2일 전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기독교 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룹1-사헬 지역: 무슬림 주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 열악한 자원을 가진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2-동유럽: 쇠퇴하는 기독교 주류 사회. 일상 가운데 종교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그룹3-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무슬림 주류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제한적.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에서 발표한 유사성을 공유하는 7개의 그룹 ©대한성서공회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4-라틴 아메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세속화되어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그룹5-북미, 서유럽, 호주권: 세속화된 사회. 기독교 인구 감소화.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그룹6-아시아: 다종교 사회. 성경에 대한 인식 부족.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7-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기독교가 주류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는 세속화되거나 쇠퇴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도 낮다.

공회 측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64%는 성경에 관한 관심이 없었으며, 10명 중 7명은 성

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비기독교인 중 64%는 성경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세속화된 국가 그룹에서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용도가 확인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보급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출판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성경 제작과 미자립성서공회에 대한 기증을 통해 성서 사업을 지원해, 2024년 한 해 동안 보급한 총 420만여 부의 해외 성서 중 53.9%를 아프리카에, 14.8%를 라틴 아메리카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기준한 총 84만여 부 중 절반 이상인 42만여 부를 아프리카에 기증했다.

공회 측은 “이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에 전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역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는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성경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유사성을 공유하는 그룹별로 보여주었다”며 “특히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과,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지역 간의 격차는 향후 세계 복음화 전략과 성경 보급 활동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성경이 다음 세대와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하나님 나라의 정치 향한 실천적 지혜와 대안은?”

한국신약학회(회장 이민규 박사)가 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청계열린교회(담임 이두상 목사)에서 ‘신약성서의 정치학-정세에 개입하는 성서해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차정식 박사(한일장신대)가 “신약성서의 ‘정치’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관점과 대안-1세기 신약성서와 21세기 한국 정치의 소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두 가지 대전제에 관해

차 박사는 “1세기 지중해 연안은 로마제국과 유대교가 각각의 신정통치 체제를 운영하던 시대였다”며 “당시 권력자들은 종교를 통해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종교 권위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그 시대 정치와 종교의 관계적 상황을 이해하

는 틀로 차용하는 것은 역으로 투사된 착오”라며 “이런 현실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는 종교적 이해관계와 종종 삼투하거나 상통하였다”고 했다.

특히 “그 점점 위에 누가복음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의기투합하여 친구가 되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교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대전제로 예수와 바울의 정치적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말했다.

차 박사는 “예수는 민중 중심의 비폭력적 대중 정치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며, 로마 통치나 이방 문화에 대해선 유대인 특유의 반이교적 정서를 간직한 채 거리를 두었다”며 “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적극 활용해 법과 질서를 선교의 도구로 삼았고, 때로는 공권력에 복종할 것을 교회에 권면한 실용적 접근을 취했다”고 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는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종교 역시 이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기독교인이 현실 정치에 대응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


차 박사는 기독교인이 현실 정치에 대응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치적 이익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윤리적 점점 위에 계발하고 슬기롭게 갈무리하는 지성이 요청된다”며 “둘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 기준을 통해 공공의 의를 분별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셋째로 정치적 실천은 거시적 정세보다도 일상의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 안에

서 ‘작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교회와 신학교, 교단, 대형교회와 미자립 교회 간의 자원 재분배 문제를 예로 들며 “이것은 신약성서의 예수와 바울이 꿈꾸며 공들여 필사적으로 실천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였다”고 했다. 그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돋아져 평탄케 되리라고 예언한 메시아의 정치와,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균등케 하리라고 신약성서 최초로 연보의 원칙을 제시한 바울의 정치경제적 기준이 그 대표적인 예”라며 “이런 삶의 자리에 배태된 신학적 의의가 이 시대 국가정치와 교회정치가 만나는 현장 속으로 성육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배제하고 따라가는 모든 정치 행위와 권력의 행사는 온갖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궁

극적으로 위선적 자가당착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분과별 발표도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는 ▲김덕기 박사(대전신학대학교[은퇴])가 ‘바울 정치학의 모호성과 급진성: 양가주장을 위한 고린도전서의 문화비평적 해석’ ▲설재록 박사(연세대)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감정의 문화정치’ ▲조규홍 목사(Univ. of Toronto)가 ‘부활 신학의 정치적 읽기: 나사로의 부활(요 11:1-45)을 중심으로’ 자유 발표에는 ▲이서영 박사(한신대)가 ‘트라우마를 통한 ‘예수의 탄식’(막 15:34) 이해’ ▲이상일 박사(총신대)가 ‘디모데후서 2:22의 ‘청년의 정욕’에 대한 인구학적인 재고’ ▲김서준 박사(계명대)가 ‘참된 신앙의 표지로서의 연보: 바울의 연보의 의미에 대한 한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장요한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다윗 같은 정치인 달라 기도하기 전, 국민들부터 깨워야”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열려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 하자는 취지의 이 기도회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직전 주간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가 처 메시지를 전했다. 이牧사는 “맑은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삼하 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정치인’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것이 이번 미스바광장기도회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나라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그런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이 땅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치적,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인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좋은 정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고, 악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한다. 정부는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법을 통해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살인자와 도둑, 음주 운전자와 아동 착취자, 마약사범들을 막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사회를 위협하고 생명을 파괴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결혼제도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정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공직은 바로 성직인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 리바이벌코리아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많은 선한 정부가 나타나도록 마땅히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할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 영역도 예외가 아니”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치 영역을 간과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해’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교회가, 이 중요한 정치 영역에 대해 침묵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 결국 사탄 마귀가 이 중요한 정치 영역을 완전히 집어 삼

키게 된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와 같은 마귀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정치와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는 그런 비겁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지금 이 민족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체제 전쟁”이라며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국민들부터 흔들어 깨워야 한다. 내 남편과 아내를 흔들 어 깨워야 하고,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흔들 어 깨워야 하고, 우리 교회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흔들 어 깨워, 정치적인 무관심과 정치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그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정치적 계몽

운동.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국에, 복음전도와 함께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경적 보수주의 운동을 통한 국민 사상 개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사명을 리바이벌코리아가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며 “맑은 정부의 근원은 바로 맑은 교회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선다. 한국교회로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 나오게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두 번째 설교자로 나선 황은혜 목사(그레이스션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마 5:14~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기도회에 모인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다. 지금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빛의 자녀”라고 했다. 황 목사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며 “지금은 이 나라가 빛으로 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어둠으로 가면 망한다고, 밝은 빛으로 나아오라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했다. 황 목사는 “빛이 된다는 건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美 교회에 코로나 봉쇄령 위반 17억 벌금 판결… 항소 예정



갈보리채플 마이클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봉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0만 달러(약 17억)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갈보리 채플 샌호세(Calvary Chapel San Jose)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아 1백22만8천7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지난 4월 15일 항소 법원이 교회에 불리한 이전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갈보리 채플은 벌금에 대한 법적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갈보리 채플을 변호하는 타이러 로 LLP의 로버트 타이러 변호사는 최근 CP에 “교회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이러 변호사는 “서면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모두 잘못되었다”라며 “우리는 패널 재심리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타이러 변호사에 따르면, “벌금은 표면적으로 무효인 위반 통지에 따른 것”이며, 항소법원은 4월 15일 판결에서 이를 무시했다. 그는 “상급 법원에 제출할 매우 큰 소송 징점이 있다”라며 “위반 통지서에는 교회가 신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에 발부된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위헌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항소 법원은 이미 해당 명령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갈보리 채플은 예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가 지방 당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프

로토콜을 제출하도록 하는 카운티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아 막대한 벌금을 물었다. 갈보리 채플은 카운티 공중 보건 당국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위헌이며 벌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갈보리 채플은 벌금에 맞서 싸우는 동안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대해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만장일치 판결로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2023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한 주 소송이 아직 심리 중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적절하게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미경 기자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험이...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18.99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www.j1mart.com

“미얀마 지진 한 달
아동들 악몽 끝나지 않아”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 이재민 캠프에서 홍수로 물에 잠긴 길을 걷는 아동. ©세이브더칠드런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수많은 이재민이 여전히 불안정한 임시 대피소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아동과 가족들이 열악한 임시 대피소에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약 2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이 가운데 4만 2천 명이 상이 돛자리와 대나무, 방수포 등으로 급히 지어진 145개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 대피소들은 폭우와 폭염을 막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진 후에도 여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어,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거나 수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얀마에서는 5월 우기가 시작돼, 임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월 중순 갑작스러운 폭우로 만달레이 인근 이재민 캠프가 물에 잠기는 등 기상 악화로 이재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재민이 겪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부족해 콜레라, 뎅기열 등 물과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주요 도시는 지진으로 상수도 시설이 망가져 깨끗한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피부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천 7백 명 이상, 부상자는 4천 8백 명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지역 중 일부는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려워 구조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살 난 아이를 키우는 틴틴 씨(32)는 “집이 무너져 축구장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 지금은 임시 대피소에 있다”며 “수입도 없고 여진도 계속돼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곳이 당분간 우리 가족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러 구호단체와 국가, 기업들이 긴급 구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금까지 쌀, 통조림, 침낭, 모기장 등 생필품을 비롯해 긴급 가정용 키트 1만 개와 대피소 6백 곳 이상을 제공했다. 하지만 장기 복구와 안전한 주거, 깨끗한 식수 공급 등 근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레미 스톨너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사무소 디렉터 대행은 “미얀마 아동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기부자들의 빠르고 유연한 자금 지원이 지금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미셀 기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암 이겨낸 한 신자의 고백



바바라 로드리게즈 작가. ©medium.com/@barbara.rodriguezfreelance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바바라 로드리게스 작가의 기고글인 ‘왜 침묵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WHY ARE YOU SILENT? JESUS DIDN’T RESCUE ME SO I COULD BLEND IN)를 1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로드리게스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믿음, 회복력,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한때 나는 침묵했다. 암을 이겨낸 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직접 목격한 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역사 앞에서도 말이다. 나는 감사함이란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이란 작게 머무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거짓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진리는 점점 더 침묵하는 이 세상에서,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항복이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에게 희망을 준 것은 의사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치료 계획이 아니라 눈물 속에 속삭인 기도였고, 생명줄이 되어준 성경 말씀이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다.

내가 오늘 살아 있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요, 치유자요, 왕 되신 분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동안 나는 그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저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고,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조용히 있기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관용이라 부른다. 그것을 진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서 지워내려는 시도일 뿐이다.

나는 부서진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던 그 감정을 잘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섞여 사라지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믿음을 숨기며 살라고 나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불 속에서 견져내셔서,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려 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진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믿음의 속삭임 하나하나, 찬양의 외침,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담대한 고백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 나는 하나의 목소리이고, 당신도 하나의 목소리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을 울리는 강력한 합창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재 속에 속삭이게 하시려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빛 가운데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최승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요청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탁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OEM
수요/금요일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1부 오전 6:00
2부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lc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영·유·초·중·고·대·청·부·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세탁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유·초·부·초·등·부·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시어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요일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토요일 오전 11:30
KM대학생예배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름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성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장로회(PCA), ‘교인·헌금·신앙고백’ 증가세



미국 조지아주 로렌스빌에 위치한 미국장로회(PCA) 총회 본부. ©New Georgia Encyclopedia

미국장로회(이하 PCA) 행정위원회가 발표한 교단의 최신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인, 헌금, 신앙고백 항목에서 긍정적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PCA 공식 매체 ‘바이 페이스 온라인’(ByFaithOnline)에 따르면, PCA의 1,667개 교회 중 992개 교회가 제출한 2024년 총 교인 수는 2023년 39만 3,528명에서 1.84% 증가한 총 40만 751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요약한 통계에 따르면, 세례, 기부, 자선 후원 등 거의 모든 주요 범주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성인의 신앙고백으로, 2023년 4,641명에서 2024년 5,678명으로 22.34% 증가했다. 성인 침례수는 16.56% 증가해 3,083명에 달했다. 어린이들의 신앙고백도 4,859건에서 5,543건으로 14.08% 증가했다. 유아 침례수는 2.4%로 완만한 증가를 보임으로써, 한 해 동안 총 5541건을 기록했다.

2024년 PCA 교회의 총 헌금은 약 12억 9천만 달러(약 1조 7,879억 4,000만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 총 약 11억 1천만 달러(약 1조 5,384억 6,000만 원)에서 15.98% 증가한 수치다. 1인당 기부금은 2023년 약 3,644.06달러(약 505만 8,000원)에서 2024년 약 4,118.98달러(약 571만 7,000원)로 13% 이상 증가했다. 교단 사역에 대한 헌금도 증가했다. 총회 기부금은 12.06% 증가해 약 2,394만 달러(약 331억 8,084만 원)에 달했다. 선교, 구제 사역 및 기타 외부 원인에 대한 총 자선 기금은 4.73% 증가해 총 약 1억 7,029만 달러(약 2,362억 원)에 달했다.

교단의 노회는 1개 감소한 87개였다. 그러나 교회 수는 전년도 1,645개에서 2024년 1,667개로 증가했다. 교직 장로는 5,347명으로 증가했고, 봉사 후보자도 572명에서 767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2024년 자료는 전국의 많은 교단에서 헌금, 출석 및 전반적인 활동이 감소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

로부터 지속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단인 남침례회(SBC)의 2024년 교인 수는 약 1,272만 명으로, 2023년 약 1,298만 명에서 2%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5만 643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이는 2023년 22만 6,919명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그 자체로 2022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한편 연합감리회(UMC)는 수천 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는데, 이는 주로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둘러싼 분열 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7,0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미국 성인 36,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파를 초월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은 10명 중 6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들(2023~24년 RLS에서 18세에서 24세)은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현재 24세에서 34세)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종교적 헌신도 측정에서 나타난 안정성이 미국의 종교적 궤도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 구성원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가 훨씬 덜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것은 미국 종교 지형이 지속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젊은 세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종교적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종교적인 새로운 세대의 성인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美 테네시주, ‘의료인의 종교적 신념 보호법’ 제정

미국 테네시주가 의료 전문가에게 윤리적·도덕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지난 4월 24일(이하 현지시각) 상원 법안 제955호(SB 955)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27대 3, 하원에서 71대 22로 통과됐으며,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의료윤리 및 다양성 보호법(Medical Ethics and Diversity Act)’으로 알려진 이 법은 “의료인이 양심에 반하는 어떤 의료 서비스도 수행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의료기관 등도 포함되며, ‘양심’은 ‘의료진이 진심으로 지닌 윤리적·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정의된다. SB 955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의료 전문가가 낙태나 성전환 수술 등 해롭거나 비윤리적이라고 여기는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해당 조치가 차별

과 진료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수 성향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그렉 차푸엔은 “이 법은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며 “누구도 자신의 직업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의료인의 표현이나 신념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한다. 또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종교적 신념과 의료 서비스 제공 간 충돌이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인이 낙태 시술이나 성전환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대표적으로, CVS 미니클리닉에서 근무한 간호사 3명은 낙태 유도약 처방을 거부했다가 해고됐고, 메릴랜드의 한 가톨릭 병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적출술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다가 법적 제재를 받았다.

신미셀 기자

“네덜란드, 조력자살 합법화 이후 급증... 英도 경각심 가져야”



©Pexel

영국과 웨일스에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의 3차 독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반대하는 시민운동가들은 조력자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상황을 언급하며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네덜란드 당국이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조력자살 건수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조력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약 1만 명 미만으로, 이는 전체 사망자의 5%가 넘는 수치이자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네덜란드에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으며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말기 질환이 아닌 정신 질환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조력자살 사례의 대부분은 여전히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지만, 정신 질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신 질환으로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2010년에는 단 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38명, 2024년에는 219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지역 조력자살 검토위원회(RTE)는 “의사들은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안락사에 동의하기 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제3자의 의학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TE는 “의사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항상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

다. 이는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력자살을 시행한 사례가 6건이나 발생했다. 한 사례의 경우, 의사가 강박적 욕구를 가진 여성에게 정신과 의사와 상의 없이 조력자살을 허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이 조력자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암스테르담 대학의료센터 정신과 교수인 다미안 데니스(Damiaan Denys) 박사는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나이의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지, 삶이 절망적이고 장래성이 없는지, 모든 치료가 이미 다 끝났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이러한 추세를 비판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 조력자살 합법화를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해당 법안의 2차 독회에서 “과거 법안에서는 조력자살에 대한 승인을 ‘고등법원 판사’가 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이것을 ‘전문가 패널’이 하도록 변경되면서 안전 조치 조항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 질환과 섭식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미셀 기자

잉글랜드축구협회, 트랜스젠더의 여자 경기 출전 허용 재검토



©잉글랜드축구협회 홈페이지.

잉글랜드축구협회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축구’ 출전 허용 결정을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월 30일(한국 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몇 주 전 내린 성전환 여성의 여자축구 출전 허용 결정을 신중히 재검토(carefully reviewing)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법원이 이는 지난 16일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국 대법원은 ‘포 위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성별이 명확하게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스코틀랜드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BBC 스코틀랜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축구협회는 트랜스

젠더 여성의 여자축구 출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성별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5-2026 시즌부터 스코틀랜드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만 여자축구 경기에 출전하게 했다.

새로운 정책은 ‘13세 이하(U-13)부터 성인’까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리그를 포함한 스코틀랜드 전역의 모든 여자축구 경기에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축구협회의 규정 변경은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럭비, 수영, 육상 등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으로, 이들 종목은 남성 사춘기를 겪은 사람의 여자부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잉글랜드축구협회는 4월 초 “12개월 이상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한 ‘성전환 여성’의 여자축구 경기 출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 현재 잉글랜드축구협회에 등록된 트랜스젠더 여자 선수는 약 20명이지만 프로팀에 등록된 선수는 없는 상태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도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안락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일예배 오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기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어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이즈키엘, ‘신사참배’ 주제 창작극 〈해방을 찾아서〉 프린지 출품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와 용서, 회복을 성찰하는 창작극 〈해방을 찾아서(To Be Liberated)〉가 2025 할리우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출품된다.

극단 이즈키엘은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며 이번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해방을 찾아서〉는 1945년 해방의 아침,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여성의 침묵 속 만남으로 시작된다.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그날, 누군가는 굴복했고 누군가는 버텼다”는 질문을 중심에 두며, 그 선택이 남긴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드러낸다.

작품은 역사극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묻는다. 복음적 메시지를 품은 대사와 상징성 강한 무대 구성은 기독교 신앙인뿐 아니라, 신앙의 무게를 고민해 본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연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연출은 전수경,

출연은 김수연·김소정, 라이브 연주는 김동석 전 UCLA 민족음악과 교수의 제자인 가야금 연주자 조셉 황이 맡았다.

〈해방을 찾아서〉는 6월 6일부터 19일까지 LA 홈고블린 플레이하우스(Hobgoblin Playhouse)에서 총 4회 공연되며, 아시아계 정체성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연극 〈나의 호랑이(My Tiger)〉와 함께 프린지 페스티벌에 출품된다.

두 작품은 함께 번들 티켓(\$20)으로도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은 프린지 공식 웹사이트(www.hff19.org/12112)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극단 이즈키엘은 2013년 LA에서 창단된 기독교 공연예술 단체로,



복음을 예술로 풀어내는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전 작품 〈마론인형〉, 〈카덴자〉는 할리우드 프린지에서 수상했다. 문의는 (213) 200-9544 또는 ezequieldram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어노인팅교회 〈5가지 사랑의 언어〉 북클럽

어노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소재)는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북클럽을 개최한다.

부모교실의 일환으로 지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북클럽은 5/14, 21, 28(수) 오전(10시)과 아버지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반(7시)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명에게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북클럽을 진행하는 어노인팅 교회 신경섭 목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는 이해가 쉽고 적용이 아주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자녀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예비) 부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북클럽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중 본인의 사랑의 언어와 자녀의 사랑의 언어

AN OINTING MINISTRY CHURCH 북 클럽 - 선착순 3명 책 증정



W.수요일 3회 5/14, 21, 28
오전반 10~11:30
저녁반 7~ 8:30
@ 라 크라센타 도서관
문의/신청 C) 224.622.9183
mcc3694@yahoo.com

어노인팅교회가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북클럽을 개최한다.

어를 파악하고, 부모 자녀간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캐리 채프만 목사가 1992년에 소개한 이래 계속 알려진 책으로 각자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고 이해해야 할 ‘언어’라고 말한다. 이번 북클럽에서처럼 자녀 관련뿐 아니라 부부, 연인 또 직장에서도 넓게 적용되고 있다.

문의: 224.622.9183, mcc3694@yahoo.com

창작가곡제가 성황리에 열린다

2025년 창작가곡제가 남가주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와 뉴욕한인창작음악회가 공동 주최로 5월 3일(토) 오후 5시 세리토스칼리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

번 창작가곡제는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시인들의 시에 한인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감성 넘치는 연주자들을 통해 공연되고 있는 창작가곡제는 유튜브에도 업로

드되었다. 이날 음악회에서 오성애 회장은 “시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도너들의 따뜻한 후원이 있어서 창작가곡제가 가능했다”고 말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구봉주 칼럼

어머니 = 기도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어머니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볼 때,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하나의 기도 사무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도는 어머니 어머니는 곧 기도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총명하고 재능이 넘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철학을 좇았고, 진리가 아닌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따라다니며, 늘 교회 한 구석에서 눈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 한 곳에서 어거스틴은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성경을 펴고,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 말씀에 은혜를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옆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두 번 낳았습니다. 한 번은 육체로, 또 한 번은 기도와 눈물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허드슨이 17세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타하신 어느 날, 그가 무료하여, 찬장에 있던 작은 책자를 집어 들었는데, 그

책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깊은 절망을 느꼈고, 그는 즉각적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바로 그 시각,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는 50마일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 허드슨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머니께 간증하자, 어머니 아멜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야 나는 그날, 내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허드슨이 어머니 아멜리아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정도로 기도의 영감, 기도의 영성을 갖춘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유학 중에 극적으로 회심한 것도,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모두 저의 의지가 아닌,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기도의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야 자녀가 삽니다.

하늘바라기



그의 손길 - 김은주

그의 손길 솜사탕 같아 부드러워라
그의 손길 동지 같아 안전하여라
그의 손길 날개 같아 행복하여라
그의 손길 태양 같아 사랑이여라

하늘 끝 닿아
바다 끝 닿아
그의 손길 무한하여라

한남옥 칼럼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론 헌터 외 14인 지음



한 남 옥 권사
시인, 수필가
나성영락교회 권사

“ 짹 짹 ” 엄마의 시계가 살아났다. 소천하신 엄마 칠순때인가 가족이 해드린 금시계, 엄마의 손목에 어색해 하셔서 몇번 차보지도 못하고 숨겨져 있었다. 그시계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오래된 시계를 다시 살리고 싶었다. 시계점에 가서 속을 청소하고 건전지를 갈아 끼웠다. 그 순간, 다시 ‘ 짹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침 소리를 들으며, 마치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삶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도 늘 “나는 배운 게 없어 하나님 나라위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렴 ”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말쑥한 나는 일을 은퇴하면 엄마의 친구같은 딸이 되어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작년, 엄마가 천국

으로 먼저 떠나시며 멈춰버렸다. 시계처럼...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하기 ’ 책 표표지에 톱니바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 눈에 띄었다. ‘교회, 가정, 학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각각의 기어에 그려져 있다. 이책을 읽으며, 다시금 멈춰던 ‘시간 ’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단지 가정사역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다. 멈춰버린 톱니를 다시 맞물리게 하여, 신앙의 다음 세대를 향한 움직임을 되살리는 소망의 서사이다.

교회, 가정, 학교는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자녀를 제자삼는 세축이다. 세개의 기어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멈춘다면 전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교회는 말씀과 공동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가정은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무대이며, 학교는 세상 속에서 신앙적 사고를 훈련하는 장이다. 세 기어는 마치 삼중 나선처럼 서로 얹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유기적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공간,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제자 훈련자로 서야하는 이유이다.

저자가 론 헌터 외 14명,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세대간 가족사역 전문가들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기에 구체적인 진단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메

세지가 많지만 이책 4장에서 소개하는 ‘TALK ABE’ 대화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ALK ABE’ 대화법은 부모가 자녀와 의미있는 대화를 이어가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TALK 는 건강한 대화의 시작이다.

T (Topics):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꺼내며 대화의 문을 연다.

A (Ask Questions): 진심 어린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신호이다.

L (Listen):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다.

K (Kudos): 존재와 태도, 노력에 대해 격려한다. ‘1등 했구나 ’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 너의 자세가 멋졌어 ’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칭찬이 아이의 내면을 자라게 한다.

A (Approach): 존중과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접근 방식이다. 대화는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훈계보다 공감과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아이의 마음도 문을 연다. 대화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지, 밀고 들어가는게 아니다.

B (Brain): 대화는 아이의 ‘생각 ’을 키운다.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각을 갖게된다.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E (Emotion): 감정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이어주는 진심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슬플 때, 기쁠 때, 속상할 때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정서를 건강하게 한다. 사랑은 말로 표현할 때 진짜 힘을 가진다.

이 대화공식은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서 따온 기억법이기도 하다. 링컨은 날카로운 논리와 따뜻한 감성,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로 설득하기 보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 대화법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복음을 품은 말, 주님의 사랑을 담은 말로 공동체를 세우기엔 좋겠다.

우리 삶의 톱니는 다시 맞춰질 수 있다. ‘reCalibrate’는 ‘멈춰도 괜찮다 ’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 ’이다. 신앙의 톱니가 삐걱거리고 멈춘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 하루 한 절 말씀을 나누는 것, 잠들기 전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 소소한 신앙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복음의 유산이 된다.

이책을 보며 내 엄마의 멈춰던 시계를 다시 살리고, 엄마의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나도 다시 시작한다. 가정의 신앙 시계를 다시 맞추는 부름처럼 느껴졌다. 우리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 시계의 일부가 되어 할 시간이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I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오픈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F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극히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i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락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강예슬 미스트롯 1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오후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김한요 칼럼

생각 바꾸기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받는 사건은 그 안 변하는 일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잘 안 변한다는 것은 얼굴 모양이나, 신체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일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과 가치관에 대한 변화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자라온 문화와 교육적 배경에서 누적된 가치관은 나도 모르게 베어 있는 것이기

에 기존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지진과 같은 사건이 아니면, 생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 드리는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일이 마음의 결심 한 번으로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운전자가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흔들 때마다 옛 모습이 재생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는 확실히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손님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이후 내가 가고 싶

은 곳에 내 맘대로 운전해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갈등도 없다가, 가끔씩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운전석에 다시 앉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얼마나 길을 헤매고 다녔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재미있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의 성찬식 기원이 되는 상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떡(빵)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주님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며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는 잘 잊어 버리는 습관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건입니다.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아차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진지한 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한다면, 마귀에서 완전 속은 것입니다.



© pixabay.com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신의 입자, 힉스 보손, 과학이 마주한 창조주의 지문(2)



이 주 형 대표
CM 홀딩스

4. 힉스 입자와 하나님의 말씀- 존재의 언어와 빛

요한복음 1장은 우주의 근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

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놀랍게도, 힉스 이론이 말하는 ‘모든 입자에 동일하게 퍼진 힉스 장’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있게 했다.” 이 고백은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입자 물리학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필드”가 “보이는 물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필드가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힉스 이론의 핵심이

며, 동시에 성경적 창조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5. 신의 입자가 말하는 것- 과학과 신앙의 접점

세상은 자주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은 언제나 신앙의 경외심을 자극합니다. 진리의 탐구는 창조주를 향한 경탄으로 이어집니다.

‘신의 입자’라 불린 힉스 보손은, 그 입자가 지시하는 질서, 구조, 미세조정, 통합성은, 누군가가 이 우주를 목적과 계획 아래 세우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힉스 입자야말로, 그 가리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창조의 흔적을 읽는 우리에게
과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정교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힉스 입자라는 현대 과학의 정수 앞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엿보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합니다.

이 우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질량이 있고, 빛이 있고, 구조가 있으며,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힉스 입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과학은 우주의 비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어머님 - 황금찬

내가 흑 밤늦게 돌아올 때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앓거나 할 때면
어머님은 언제나 기도를 드리셨다.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자식들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당신의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장차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 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님은
기도를 끝 맞추시고
얼마 후에야 「아멘」을
음성에 힘을 주어 하신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
나는 고아가 된 느낌으로
며칠을 두고 울었다.

지금은 내가
내 무릎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옛날 어머니의 음성처럼
내 기도엔 힘이 없다.

그립다.
어머님의 그 힘있던 음성으로
드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는 것이-----.

황금찬(黃錦燦, 1918년 8월 10일 - 2017년 4월 8일) 시인은 강원도 속초 출생으로 <문예> 지에 시 <경주를 지나며> (1953년)를, <현대문학>에 <점동새> , <여운> (1955년)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일본 도쿄 다이토(大同) 학원 대학을 중퇴하였으며 동성고 교사와 중앙신학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평생 총 40권에 달하는 시집을 펴냈으며, 생활 속 실 새 없이 2,000여 편의 시를 비롯하여 8,0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다작(多作)의 문학계 원로였다. - 조덕영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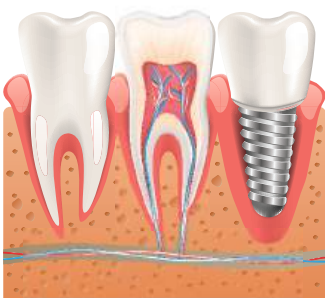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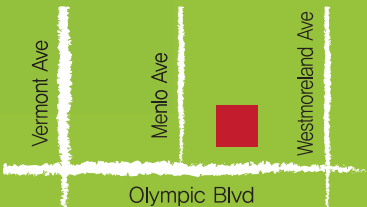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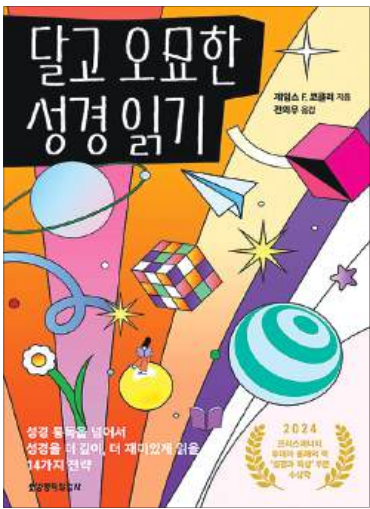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은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다

성경을 더 깊고 재미있게 읽는 14가지 방법



달고 오묘한 성경 읽기

제임스 F. 코클리 |
전우익 역 | 생명의말씀사 |
240쪽 | 17,000원

내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다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칠 수 있기를!

성경 통독을 넘어서
성경을 더 깊이, 더 재미있게
읽을 14가지 전략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성경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쩌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즐겨 읽어
마땅한 이 성경을,
정작 아무 감동도 없이
정해진 분량을
후다닥 읽어 치우고
마는 걸까?

매년 기독교인들은 성경통독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성경통독 캠프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나 도구들을 구입하기도 한다.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경 일독표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교회도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 맛과 깊이가 달고 오묘하여 절대로 물리지(질리지) 않는다고 다들 말하는데, 실제로 통독에 임하는 성도들이 체감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너무 깊어서인지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늘 읽어온 책이다 보니 신선하게 읽히지 않을 때도 있다. 2024년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특히 ‘성경과 묵상’ 부문에서 수상한 <달고 오묘한 성경 읽기>가 그런 면에서 반가웠다. 책의 부제는 원제와 의미가 유사하다: ‘성경 통독을 넘어서 성경을 더 깊이, 더 재미있게 읽을 14가지 전략(14 Fresh Ways to Enjoy the Bible)’.

책의 저자인 제임스 F. 코클리는 무디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성경을 가르친, 성경을 진실로 깊고 재미있게 읽을 줄 아는, 그리고 그 방법을 독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학자다. 하지만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저자가 제시한 14가지 ‘신선한’ 방법도 영원히 신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책이 제공하는 여러 전략이 성경을 흥미롭게 읽고 연구하도록 도와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과 동기가 항상 필요하다. 그것을 전제로 저자가 약속한 ‘성경 읽기를 더 없이 즐겁게 해 줄 전략’을 따르면, 독자는 이전과 다른 깊이와 흥미를 갖고 성경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15쪽).

저자는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시된 구절들을 찾아 확인하면서 한 번에 한 장씩 읽는 것(17쪽)”을 추천한다. 보너스 챕터에서 저자는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가령 반복해서 읽기, 소리 내서 읽기 등). 본문에서는 성경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면서 저자가 성경 본문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였는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찾아내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스스로 읽어보면서 저자가 제시한 14가지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권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그룹으로 이 책을 읽고 같이 성경 읽기를 해보는 것이다. 성경은 원래 공동체 앞에서 읽고 또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즐기는 14가지 신선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첫인상 ②라벨 읽기 ③마이크 앞으로 ④발사대 ⑤아름다운 북엔드 ⑥사물 학습 ⑦시 다이아몬드 ⑧위치, 위치, 위치 ⑨시간 관리 ⑩비순차성 ⑪반복 ⑫X표시 ⑬알림 ⑭데자뷔.

2019년 규장에서 출간된 <성경을 즐겁게 읽는 10가지 방법>에서 저자인 케이스 페린은 성경을 지루하지 않게 대하는 여러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코클리가 제시하는 전략이 페린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보다 성경의 문자적 특징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페린이 ‘성경을 읽는 법’에서 ‘읽는 법’을 가르치려 했다면, 코클리는 ‘성경’ 자체가 기록된 방식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가령 12번 ‘X표시’에서는 성경의 교차대구법적 구성을 설명하는데, 시나 내러티브 전체가 어떻게 교차대구법적으로 기록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중앙에 위치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돕고, 3번 ‘마이크 앞으로’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말하는 것(그래서 큰따옴표로 인용한 것)을 찾아서 저자가 왜 그것을 직접 인용했는지 의미를 찾아내도록 돕는다.

어떤 독자는 코클리가 제시한 성경 읽기 전략이 조금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어 시간에 다양한 문학 장르를 해석하고 이해



▲◎픽사베이

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저자가 제시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학 장치와 도구를 이미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성경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신 절대 진리와 권위가 담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 주셨다. 그러므로 겁먹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방법을 하나하나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관찰하고 읽고 연구하면, 분명 저자가 약속한 것처럼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재미있게 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이들에게, 들을 귀,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리고 말씀을 꿀솜이보다 더 달게 느끼는 영적 미각,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고 예배하는 마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29

You will find him
if you seek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DEUTERONOMY 4:29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위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부서: 행정 및 전임 부목사 (Full time)

1. 지원 자격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2) 이중언어 가능한 분
(3)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지원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목사-2인):목회자 2인 중에서 한 분은 현재 담임목사

3. 서류제출 및 마감
• 모든 서류를 ocpc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자: 6/21(토)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4. 문의 허재영 목사: (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두 미술가의 다른 신념 체계, 엇갈린 행보

월남 기독교 작가 김학수와 월북 맑시즘 작가 박문원

박문원 작가 사회주의 세계관
노동계급 해방 공산주의 건설
김학수 작가는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웃 위해
기독교 세계관, 긍휼함과 섬김
인생 향로 없으신 알 될 ‘햇묵’

해방 후 한반도 격변을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두 미술가가 있다. 자신의 철학을 실천한 행동주의자 박문원(1920-1973)과 김학수(1919-2009)가 그 주인공들이다.

박문원은 ‘철저한 사회주의자’로, 김학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각각 1920년생, 1919년생으로 동년배라는 사실, 혼란기를 겪은 미술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뚜렷한 신념 체계를 지녔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들의 신념 체계에 따라 6.25 전쟁 기간 박문원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갔고, 김학수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 맑시즘 예술 이론가이자 작가인 박문원의 이력에는 그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다. 해방을 맞아 그는 남로당 서울시 문화부 총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산당원으로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투신하였다. 남로당 당원이 되었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이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해방 공간에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미술동맹 중앙위원과 조선미술가동맹 서기장을 지냈고,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자 ‘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북한 미술사학자 리재현은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인민 대중의 혁명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가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 미술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만이 가질 수 있는 사상과 감정을 통하여

더욱 고도한 예술수립을 기도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조선미술의 당면과제, 1945).”

이어 서양 미술은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불구적’ 예술이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익을 대면하는 예술에 집중하며 공산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예술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제 모순을 폭로시키고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해오는 만국 프롤레타리아 미술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세계미술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제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 소비에트, 러시아의 미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조선미술의 당면과제, 1945).”

몇 년 후 발표한 글에서도 ‘예술이란 하나의 선전수단(선전미술과 순수미술, 1948)’으로 규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무기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월북한 후 문화성 제3대 부상, <조선미술> 발행을 맡는 가운데 김일성의 문예정책을 옹호, 홍보하는 글들을 발표하는 등 사회주의자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그와 정반대의 삶의 궤적을 보인 사람은 해촌 김학수이다. 평양에서 태어난 김학수는 청소년 시절 하나님께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로 서약한 후 평생 그 약속을 준수하고자 힘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남한에 내려와 수많은 풍속화와 기록화 등 귀중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그가 월남하게 된 것은 북한 당국의 교회 탄압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에 기인한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작가는 생전에 갑작스런 이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떠나온 아내의 얼굴이 눈에 어린다고 슬퍼했다. 아내와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 세기 이상을 독신으로 지냈다. 남한에서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됐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영도 대한도자기 회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사회주의 예술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사진은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무리가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화를 들고 소련군 진주를 환영하는 모습.

사에서 도자기 그림을 그리며 생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함께 피난 온 청년들(그들은 평양 성화신학교에서 한문·서예를 가르치던 제자들이었다)에게 먹을 것과 보급 자리를 제공해주었다. 그가 돌본 청소년들이 4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자서전 <은총의 70년>에서 “그 아이들이 마치 두고 온 자식 같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위안과 보람을 맛보게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고 술회하였다. 서울 수복 후 청과동에 살 때는 고정 가족 외에 새 가족을 받아들여 그들을 돌보며 지원했다.

그런데 김학수는 박문원만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박문원이 일본 동경제국대학 유학에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인데 비해, 김학수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소학교를 졸업한 것이 고작이다. 16살 때 부친, 18살 때는 모친이 돌아가셔서 학교에 더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다.

회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노동계급을 해방함으로써 착취와 압박과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투쟁하였다.

반면 김학수의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인간과 역사와 현실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웃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았다. 박문원과 김학수는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 사회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달랐고 그 상이한 관점에 따라 각각 월북·월남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였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관이 존재하지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스스로 고안한 것임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 형식을 통해 이것이 인간의 경험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기독교 세계관은 김학수에게서 보듯 동료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며, 이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어느 철학자는 각자 훌륭한 이론을 받아들여 “그것을 인생을 향해하는 햇묵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김학수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인생 향로를 헤쳐가는 데 없으신 알 될 ‘햇묵’이었다. 박문원은 그런 ‘햇묵’을 갖추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인본주의자였다. 그의 삶을 보면,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아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는 워커 퍼시(Walker Percy)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김학수, 경동상회, 1760x910cm, 1989. 6.25 전쟁 이후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섬세한 붓질과 화사한 색상으로 담아냈다(김학수기념박물관 소장).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힙니다.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물 · 불 · 공기 · 흙... 영화 <아바타> · <엘리멘탈>과 세계관

[세계관 수업 2] 존재의 근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 세계관 출발
기원전 600년부터 자연계 관심
최초 철학자, 자연 철학자 시대
현대 학문 넘어 콘텐츠 기원까지
초월적·유일신 배제, 인본주의로
성경, 존재 근원 한마디로 답해

한때 매우 인기 있었던 어린이 만화 영화 ‘아바타- 아양의 전설’을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물, 불, 공기(바람), 흙의 나라에서 각각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불의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모든 원소에 통달한 아바타라는 존재인데, 드디어 ‘아양’이라는 소년이 아바타로 등장해 세상을 구한다는 권선징악 스토리입니다.

또 ‘엘리멘탈’이라는 픽사 애니메이션도 있지요. 거기서도 물, 불, 바람, 흙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불의 도시 아가씨와 물의 도시 청년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물, 불, 바람, 흙과 같은 기본 원소로 구성돼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올림푸스

의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에는 죽음의 신 하데스, 그리고 하늘에는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등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인간 세상을 아주 복잡하게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적 세계관이 기원 전 600년경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신들에게서 자연계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과 땅의 숲과 강물들, 그리고 화산과 태풍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자연이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물리적인 원리와 근본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인 자연 철학자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 철학자들 중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을 네 가지 기본 원소라고 생각했고, 데모크리토스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

는 원자를,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수’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현대의 물리학, 화학, 수학의 기본 개념뿐 아니라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내용도 파생됐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철학이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학의 분야는 크게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등으로 나뉩니다.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 세상에는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분야가 형이상학입니다. 앞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존재의 근원을 물, 불, 바람, 흙과 같은 원소들이라 보고, 세상의 변화무쌍한 존재들이 이 원소들 간 상호작용 결과로 생겨났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포함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분야가 형이상학인 것입니다.

인식론이란 그런 존재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해 논리적 추론을 통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합리주의로, 반면 감각적 경험이 인식의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면 경험주의 전통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후대에는 이 두 가지 인식론을 통합하거나 비판하면서 서양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론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미학이 이 분야에 해당합니다.

다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돌아가 보지요. 이들은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 논리와 삶의 경험을 토대로 추론해 보려 했



어린이 만화영화 <아바타- 아양의 전설> 중 한 장면. ©위키

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습니

다만, 올림푸스의 신들을 배격하면서 자연과 현세를 초월한 실질적이고 유일한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논의에서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유일하신 ‘신(神)’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수천 년간 고민하고 있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식론과 가치론도 그에 따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질서, 물리적 질서, 도덕적 질서 그리고 미적 조화에 따라 인간과 만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답은 자연 세계를 초월한 영역입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안드로니쿠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가운데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듯한 글들을 모아서 메타피직스(Meta-physics)

라고 명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메타 (Meta)’는 ‘~를 초월하는’이라는 뜻이고, 피직스(Physics)는 원래 ‘푸지카(Fusika)- 자연학’이라는 뜻이니, 메타피직스란 자연을 초월하는 학문, 즉 형이상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이성으로는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에 대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인식론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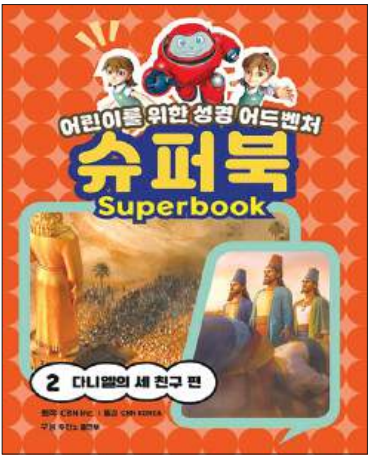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계속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수천년을 방황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었지만 말입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물 · 불 · 공기 · 흙 등 4원소설을 반영한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

어린이들 위한 성경 어드벤처 ‘슈퍼북’



슈퍼북 2: 다니엘의 세 친구
CBN Inc. | CBN KOREA 역 |
두란노 | 140쪽 | 14,000원

어린이날을 맞아, 성경 TV 애니메이션을 책으로 엮은 ‘슈퍼북’ 두 번째 시리즈 ‘다니엘의 세 친구’ 편이 발간됐다.

이번 슈퍼북 2권은 1권 ‘다윗과 골리앗’ 편처럼 크리스와 조이, 로봇 기즈모가 성경 속 다니엘 3장 ‘다니엘과 세 친구’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그들의 용감한 신앙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다.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느

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그 세 사람과 용광로 안에서 함께 해 주셨다.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찬양한다.

책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과 그들을 구해내신 하

나님이라는 주요 스토리와 함께 남유다 멸망과 바벨론 유수, 바벨론 제국 문화 유적 이야기도 시각 자료와 함께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암송 성경 구절과 기도, 퀴즈와 만들기 자료, 스티커 등으로 어린이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윤준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였는데,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은퇴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당뇨가 심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냥 더 늦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 저것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많지도 않은 딱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절을 받기 시작했는데 둘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모기지 \$1,800을 내면 \$1,900 정도가 되니까 뭐 아껴서 살면 우리들이 못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를 하면 1,800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 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천불씩만 꺼내 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집을 넘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니

또 아 생활비 계산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일까요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선생

5월 가정의 달
우리아이 백만장자 프로젝트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모님은 학자금 준비
자녀들은 복리저축
세미나

5월 22일 (목), 10am

CONTACT : 626-827-9599 Email: symoonmoneytalk@gmail.com
3435 Wilshire Blvd., 14FL, LA, CA, 11876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지만, 정말 이자율을 계산하고 통틀 표코케어 상황에서 도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하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는 방법 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은 다 갚아 버리고 싶고, 지출은 줄여야 했다

을 꼭 저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자금 30만불을 모기지를 전부 페이오프 하여 지출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2.5% 모기지를 이자보다 훨씬 많은 7% 정도의 이자를 받아 은퇴인컴을 더 높이고 통틀케어까지도 준비할 것인지,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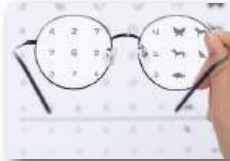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 | | |
|---|---------------------------|---------------|
|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 활성산소 완화 | ● 장내 효소 증가 |
|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 소화기능 개선 |
|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 빈혈, 간 기능 개선 |
| |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 면역체계 향상 |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